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2024

일시 2024. 6. 3.[월] ~ 4.[화]

장소 한동대학교 김영길 GRACE 스쿨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



1. 개요	01
2. 개회식	03
3. World Wisdom Forum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글로벌 시민을 위한 지혜를 나누다	05
4.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 미래를 바꾸는 도시: ESG-세계시민도시 포항, 혁신을 그리다	09
5. ESG 전인적 세계시민기업 Talk 미래를 바꾸는 기업: 지금, 지속가능한 변화 ESG	11
6. 특별 강연 AI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될 것인가?	13
7. YOUTH 학술회의 미래를 바꾸는 Youth: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학술회의 발표	14
8. 문화 공연	17
9. 언론보도	19
10. 도움 주신 분들	22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4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가 6월 3~4일 이틀간 포항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과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 라는 주제로 한동대학교 및 포항시 대학생과 고등학생, 포항시 공무원, 기업인, 시민 등을 포함한 1,7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UN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는 정직, 성실, 책임, 존중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닌 전인적 세계시민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한동대학교가 개교부터 지향해 온 교육 철학인 “전인 교육과 국제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동대학교와 함께 김영길 GRACE* 스쿨을 설립하였습니다.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는 이러한 가치를 학내외와 다양한 지역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하고 함께하는 무브먼트로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기조연설로 참여해 주신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105세 철학자로 우리 시대 지성인을 대표하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의 강연과 대담에 이르기까지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연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미래를 바꾸는 포항의 도시 전략을 논의한 이강덕 포항시장님, UNAI Aspire 대학생들과 함께해 주신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님(前 UN대사), ESG 실천에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 토크, AI 특별강연,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홍이삭과 김세은 예술감독이 함께한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난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 낸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근

UN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 이사장

* 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2024.
6.3(월) ~ 4(화)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2024

총 참가자
1,728명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4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는 H.U.M.A.N.으로 요약되는 전인적 세계시민의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이에 뜻을 같이하는 주요 내외빈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파리 협정 체결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시민 정신을 기반으로 한 가치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세계시민 정신을 가지고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미래 세대 번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육, 질병, 해결, 평화에서 세계시민 정신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과 인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유종근 UN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 이사장은 하이테크의 발달과 정보 과잉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UN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GRACE 스쿨과 함께 전인적 세계시민의식과 실무형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계시민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사회의 변화와 난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감사하며,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와 불확실성에 맞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기여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동대학교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미래 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실천 프로젝트를 지역공동체인 포항시와 함께 하고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의장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배양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05세 철학자,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여겨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가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의 World Wisdom Forum의 연사로 나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객석은 물론 계단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이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강연과 대담에 이르는 90여 분 동안 모두가 경청하는 가운데 세기를 통찰하는 지혜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인생을 돌아보니

언제부터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인생을 시작했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

김형석 교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인생의 의미를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의 14세 중학교 시절 친구들 중에는 시인 윤동주, 어린이들을 돌보는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홍창의, 그리고 소설가 황순원 등이 있었다. 친구들의 꿈과 열정에 감동하는 반면 스스로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소년 김형석의 인생 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교육과 성장에 대한 통찰

인생의 목표를 정립하려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김형석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문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독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하며,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키우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학교 교육은 여러분이 받는 교육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독서를 통해 정신적 빈곤을 타개하고, 폭넓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마하트마 간디의 전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성수 선생을 통해 애국심과 인격 수양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가 사회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서를 장려하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지하게 스스로의 공부, 나아가 학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서가 아주 중요하지요.”

선의의 경쟁과 사랑의 교육

그러나 공부가 반드시 경쟁이 될 필요는 없다. 김형석 교수는 경쟁 일반도의 요즘 교육이 많이 우려된다며, 이기적인 경쟁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서로를 도와주며 성장하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경쟁 중심의 시각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형석 교수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친 결과 제자들이 더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고 나아가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60대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90이 되어도 계속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행복이었던 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하게 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가 70대이던 시절, 90대 선배 교수께서 “70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좋은 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나이까지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회고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오히려 시간도 많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꾸준히 집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끝날 때 끝나더라도 정신적인 노력이 끝나는 것은 몸이 끝날 때이니 미리 겁낼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교수는 “당부하건대, 우리 학생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긴 인생을 살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글로벌 시민을 위한 지혜를 나누다

대담

김형석 교수와 한정연 채널A 기자가 함께하는 대담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형석 교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삶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사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폭넓게 사유하고 창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자화상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김형석 교수는 사회와 어느 정도는 타협하더라도 자신만의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기를 당부했다. 또한 일생을 돌아볼 때 책임감과 사랑이 있는 삶이 행복했다면,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김형석 교수는 “세계 속의 한국, 역사 속의 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인 시야와 미래를 위한 생각을 지속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그간의 삶에서 느꼈던 에피소드를 통해 김형석 교수는 지혜, 사랑, 교육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105세 철학자가 보여준 삶의 지혜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전인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해 폭넓게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6월 3일 세 번째 세션인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래를 바꾸는 도시 ESG: 세계시민 도시 포항 혁신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사들이 참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포항시가 2021년에 'ESG 포항'을 선포한 후,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의 혁신과 미래 비전

포항시는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 과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포항이 청년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도시의 사례와 포항의 적용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의 첫번째 연사인 **이동영 한동대학교 법인사업단장**은 포항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샌디에이고, 에인트호벤, 뮌헨 등 글로벌 도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샌디에이고는 과거 항구 도시에서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에인트호벤은 필립스의 쇠퇴 후 브레인 포트 전략을 통해 신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포항이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디지털 융합 산업 등 신산업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포항: 산업, 도시, 교육

세션 후반부는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포항의 3가지 영역: 산업, 도시,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발표가 진행되었다. **김창모 산업연구원 박사**는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포항시의 2차 전지와 신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포항시가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 전지, 바이오, 디지털 신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혁신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문규 NIBC대표는 포항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항이 다른 지방 도시와 경쟁하는 대신 글로벌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글로벌 창업 투자 부문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 기업, 학교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청록 한동대학교 기획처장은 교육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동대학교가 무전공 입학, 전공 선택의 자유 등을 통해 교육 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동대학교가 글로벌 교육 거점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화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은 포항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포항이 2030년까지 혁신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도시가 되기 위해 이를 위해 포항시와 한동대학교가 함께 혁신적인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전인적 세계시민기업 Talk



6월 4일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의 두 번째 날, <미래를 바꾸는 기업: 지속 가능한 변화 ESG>라는 주제로 ESG 전인적 세계시민기업 토크가 진행되었다.

조혜신 한동대학교 ESG ICT 스타트업 사업단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션에는 김호민 스파크랩 공동대표가 사회를, 그리고 김광현 파타고니아 팀장과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ESG 경영의 중요성과 실천 사례,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세션 종료 후에도 많은 이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등 참가자들의 진지한 열정이 가득했다.

미래를 바꾸는 기업: 지금, 지속가능한 변화 ESG

김호민 대표는 스파크랩(SparkLabs)은 한국과 미국에서 창업과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현재까지 300여 개의 스타트업에 15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이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투자에 있어서 ESG가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하며, 수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역시 중시하기에 기업의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파타고니아(Patagonia)이다. 김광현 팀장은 파타고니아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업 활동이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파타고니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매출의 일부를 환경 보호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ESG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파타고니아가 ESG 경영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하며,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파타고니아 기업 철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리하베스트(RE:Harvest) 역시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창업 계기와 사업 모델 소개로 강연을 시작한 창업자 민명준 대표는 기존에 버려지던 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리너지 가루로 재탄생시켰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리하베스트는 국내 대기업 투자 및 정부지원금 유치에 성공했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성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명, 진정성으로부터

행사 후반부에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ESG 경영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기업들의 실제적인 ESG 실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김광현 팀장은 파타고니아의 ESG 실천이 어떻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 개인의 힘이 모여 기업과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명준 대표는 창업 초기의 도전과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기업의 진정성과 실적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강력한 ESG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업토크는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철학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기업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끝으로 김호민 대표는 기업의 사명감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를 탐색해 나갈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ESG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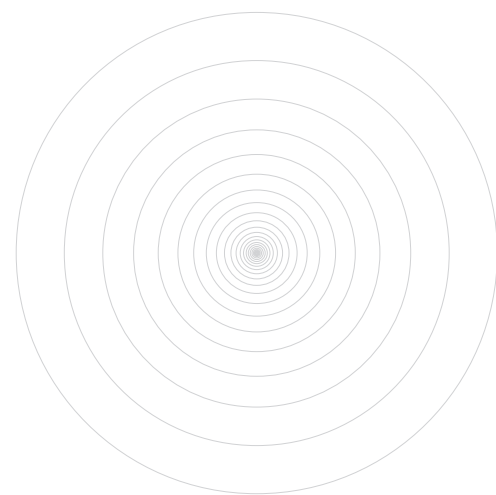


현재 美 Emory 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재직중인 **최진호 교수**의 연구소는 AI챗봇과 인간적인 대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AI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맞는 기독교 사역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놀라운 기능과 영향력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존의 교수법과 달리 AI는 채점과 문제 제공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며, 학생들의 취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장점을 지닌다. 코로나 이후 교사 부족 현상과도 맞물리다 보니 AI는 향후 교육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에 선불리 AI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 데이터 수집과 제공 방식은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특정 기업이나 집단의 이익에 맞춰 편향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애매하고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최진호 교수는 올바른 가치관을 반영한 AI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이를 위하여, AI가 선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독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AI 개발은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협력하여 이를 실현할 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UNAI Aspire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오준 前 UN대사는 “미래를 바꾸는 Youth: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학술연구 발표”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현재 세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언급하며 전쟁의 현황과 민간인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군인들은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민간인은 전쟁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전쟁의 시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오준 대사는 또한 미중 관계의 대립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전기차를 둘러싼 이슈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례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위협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며,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퓰리즘과 시행착오, 특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증대 또한 중요한 키워드이다. 기후 변화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불평등의 증대는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익을 얻지만 정부의 통제는 제한적이어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은 국가들이 글로벌 이슈에 협력하지 않고 자국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 4차 산업 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진보를 이루어 내었고, 인류 공동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다면 세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하여, UN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에도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기를 이어갔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는 UNAI Aspire의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소개 및 우산, 돗자리 등 업사이클링 물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대학생들의 SDGs 참여와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홍이삭과 김세은이 노래하는 미래
“오.히.려.좋.아.”

1부 비트냅 (이주원/김영진) X 정원준 X 김세은

- PLAYLIST
- Best Driver
 - Boozed Dazed
 - 자화상
 - 모란이 피기까지는

2부 홍이삭

- PLAYLIST
- 재회
 - 잠자리 지우개
 - Close Your Eyes
 - Fallin'
 - 숲
 - I love You
 - 사랑은 하니까
 -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 A bird
 - 기다림
 - 시간이 지나도



사회

디지털조선일보

기사입력
2024.06.07 16:15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회(UN Academic Impact Korea : UNAI Korea)가 지난 3일부터 4일 양일간 한동대학교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를 주제로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를 개최했다.



▲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 사진 제공=UNAI Korea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는 H.U.M.A.N.이라는 전인적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인적 세계시민 리더가 가져야 할 지혜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리더와 기업, 정부가 모여 실행 사례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에 대해 토론을 위한 World Wisdom Forum, ESG 전인적 세계시민 기업 Talk, 특별 강연,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 김영길 GRACE 스쿨, 한동대학교, 포항시가 협력했다는 설명이다.

영상을 통해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은 우리에게 함께 행동해 지구를 위해야만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 그것을 바로 세계시민 정신이라고 명명한다며, 덜 사용하고, 더 신경 쓰고, 멀리 내다보고, 국경을 초월하고,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키우고,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세계시민 정신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유종근 UNAI Korea 이사장은 위기의 미래에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은 정직, 성실, 책임, 존중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신뢰하며 연합할 때에 세계시민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를 통해 책임감 있고, 전인적 세계시민 리더를 양성하며 올바른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3일에 진행된 World Wisdom Forum은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글로벌 시민을 위한 지혜를 나누다"는 주제로 105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사회

디지털조선일보

기사입력
2024.06.07 16:15



▲ 강연을 하고 있는 김형석 교수의 모습 / 사진 제공=UNAI Korea

김형석 교수는 강연을 통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정신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고, 남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행복은 자신이 찾는 것이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해보고, 전쟁에 고통받는 먼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며,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세계 속에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의 선물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4일에 진행된 ESG 전인적 세계시민 기업 토크는 '미래를 바꾸는 기업: 지금, 지속 가능한 변화 ESG'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이자 패널인 스파크랩 김호민 공동대표는 ESG 투자 트렌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명과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구하며 ESG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인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은 "파타고니아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철학을 가지고 설립되어 비즈니스를 통하여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는 "리하베스트(RE:harvest)란, 우리가 수확한 것을 존중하라(Respect the harvest)는 뜻"이라며, 필요한 것만 취하지 말고 식품 부산물에서 나오는 원료 자체를 다듬어 친환경 식품 및 원료를 개발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기업 ESG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는 이강덕 포항 시장이 환영사와 대담을 나눈 '미래를 바꾸는 도시 : ESG-세계시민도시 포항, 혁신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 '미래를 바꾸는 Youth: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학술 연구 발표', 특별강연 'AI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될 것인가', 홍이삭 싱어송라이터의 문화공연 세션 등을 통해 마무리됐다.

한편,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를 주최한 UNAI Korea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는 지속 개최될 것이며, 세계 시민 리더들이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GRACE(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스쿨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해법을 찾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O	언론사	기사제목
1	디지털조선일보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2	서울신문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3	동아일보	유엔아카데미임팩트코리아,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4	아시아투데이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성황리에 마쳐
5	세계일보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로 세계시민교육 강화
6	아주경제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7	아시아경제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한동대학교에서 개최
8	헤럴드경제	UNAI Korea, 한동대학교서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진행
9	뉴스컬처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한동대학교에서 제4회 세계시민위크 열어
10	뉴스핌	UNAI Korea, 제4회 세계시민위크 개최..'위기의 미래' 주제 논의
11	이투뉴스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UNAI Korea 주최로 한동대학교서 개최
12	시민일보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UNAI Korea 주최로 한동대학교서 개최
13	내외경제TV	UNAI Korea, 한동대학교서 세계시민위크 개최... 위기의 미래 다뤄
14	IT 비즈뉴스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15	인터뷰365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로 세계시민의식 고취
16	잡포스트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17	시선뉴스	UNAI Korea, '위기의 미래' 주제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
18	에너지경제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개최로 세계시민교육 확대
19	더퍼스트	UNAI Korea, 한동대학교서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성공적으로 마쳐
20	서울경제TV	UNAI Korea,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성료

한동대학교

한동법률대학원

경북대학교

미해병대캠프
무적보안경비사무소

- 고다은

권지환

김경진

김다함

김민경

김준성

김태빈

김하겸

김해수

맹다은

박거성

박진주

배유진

손예은

안다영

엄지희

여민지

이가현

이강현

이다경
- 이승범

이아형

이예린

이지환

이하민

이훈희

장영민

전하임

정경난

정은지

정하은

조정현

주홍재

최보우

한 봄

한지석

함예원

허다경

현하나

홍지우

The background is a deep blue gradient with several sets of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er blue shade. Small white dots are scattered across the background, resembling a starry sky or a network of node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image.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